

와렌가와

물이 마른 미즈나시가와 하류에 와렌가와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세기에 걸친 자연재해와 관련된 지역 부흥의 작은 상징입니다.

1791년부터 1792년에 걸쳐 연달아 지진과 화산 분화가 일어나 마유야마(819m)가 붕괴되었습니다. 시마바라 대변으로 알려진 산사태와 쓰나미는 시마바라 마을을 파괴했습니다. 그러나 이 재해로 인한 예기치 못한 수해도 있었습니다. 신선한 용수가 지진으로 생긴 지면의 갈라진 틈으로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돌아오자 이 용수는 그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수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1년에 또 재해가 지역을 덮쳤습니다. 1990년부터 1995년에 있었던 헤이세이 대분화로 인해 운젠 후젠다케에서 분출한 화산재와 용암이 산 정상 부근에 고였다가 1991년 6월 30일 폭우로 미즈나시가와까지 이르는 대규모 토석류가 발생하면서 지역은 다시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와렌가와의 용수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이 용수는 긴급 시 수원이자 지역 단결과 부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분화 후에 최초로 정비한 곳 중 하나인 미즈나시가와 하천 부지는 재해 대비와 레크리에이션을 고려하여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상류의 큰 사방댐은 미래를 대비해 토석류를 가두어 흐름을 조절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류에는 마음 편히 놀 수 있는 장소가 몇 곳 있습니다. 이 기념비는 용수에 감사하고, 수백 년동안 용수와 함께 생활해 온 커뮤니티의 상징으로 만들어졌습니다.